Global News

1. CEO-직원 보수배율(CEO pay ratio)과 경영성과의 연관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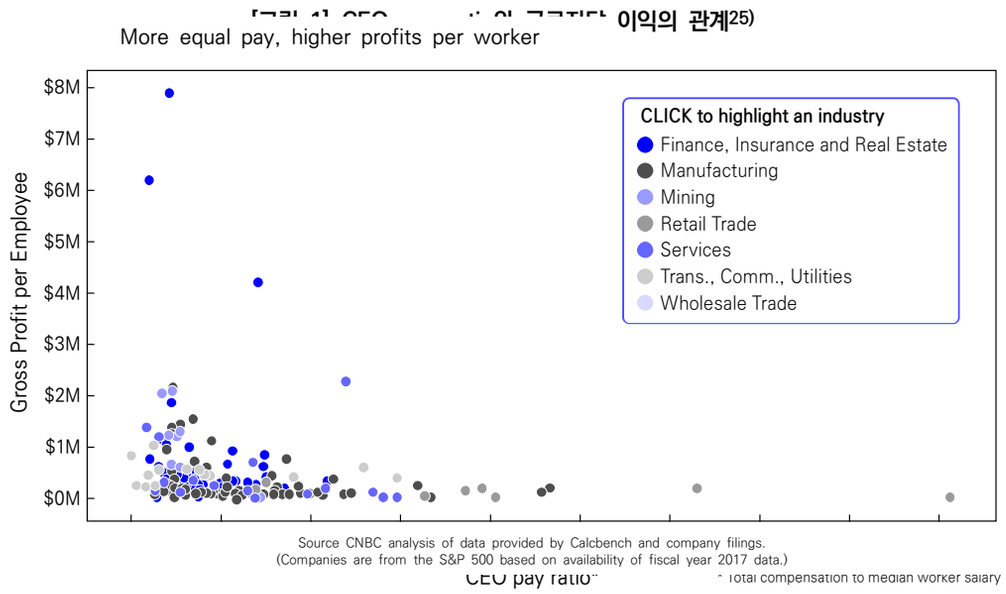
□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목적으로 『도드-프랭크 법(Dodd-Frank Act)』을 지난 2010년 제정하였고, 그 영향으로 미국 증권선물위원회(SEC)는 미국 상장회사의 CEO와 직원간의 임금격차를 나타내는 'CEO pay ratio'를 공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원칙을 2015년에 승인한 바 있음[22)]

○ 전체 직원 연봉의 중간값과 CEO의 연봉을 각각 공개하고 그 격차를 비율의 형태로 공시하도록 Regulation S-K 402 item을 개정하였는데[23)], 이 원칙은 2017년 1월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

- 최근 2017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면서 CEO pay ratio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

□ 미국 경제방송 CNBC는 공개된 CEO pay ratio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이 균등할수록 근로자당 이익(profit per worker)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함[24)]

[그림 1] CEO [illegible] 이익의 관계[25)]



22) https://www.sec.gov/rules/final/2015/33-9877.pdf
23) 경영진의 보수 공개를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보고서(연차보고서, 증권신고서, 위임장 등)에 적용되는데, 신생회사/ 소규모 공시법인/ 해외상장기업은 그 적용이 배제됨
24) https://www.cnbc.com/2018/05/13/closer-ceo-pay-ratios-may-generate-higher-profit-per-worker.html
25) https://www.cnbc.com/2018/05/13/closer-ceo-pay-ratios-may-generate-higher-profit-per-worker.html

○ 기사는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,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임금 불평등은 회사의 미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[26)]

- 모두가 CEO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평등하게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어, 임금 불평등이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에 대한 동기를 잃게 만들기 때문임

○ 나아가 회사의 규모, 지역 분산, 시간제 근로자 비율 등 요소에 따라 CEO pay ratio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동 지표를 타사와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함

- CEO Pay ratio는 비교지표로서 의미를 가지기 보다는, CEO와 근로자간의 임금 불평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것임

○ 마지막으로 CEO pay ratio 공개를 지지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 보수 중간값을 올리고 과거 보수배율에 가깝게 만드는 것임을 설명함[27)]

26) Ethan Rouen, Rethinking Measurement of Pay Disparity and its Relation to Firm Performance, 2017
27) 1965년 CEO pay ratio는 20:1 이었으나, 2013년에 296:1까지 격차가 벌어짐